태권도의 날 기념식, 비대면 축하영상으로

9월 4일 코로나19 상황 고려 기념식 치르지 않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장용갑) 등과 함께 '2020년 태권도의 날'을 축하하며, 대규모 기념식을 대신해 축하 영상으로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기쁨을 나눈다.

9월 4일은 법정기념일인 '태권도의 날'이다.

태권도의 날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08년 6월 22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 국회, 태권도 기관·단체, 태권도 원로, 사범, 수련생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기념식을 태권도원 등에서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경기를 가진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기념식은 진행치 않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동섭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비롯한 태권도 주요 기관·단체장의 축하 영상으로 태권도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태권도 기관·단체는 "올해 태권도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태권도인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어 태권도 진흥과 보급, 발전을 위해 태권도인들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월 4일 열리는 '2020 태권도의 날' 기념식은 비대면 축하영상으로 대체된다. 사진은 지난해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린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

한편, 2020년 태권도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경식 국가대표 코치와 K타이거즈 제로 나태주 등이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인비, LPGA투어 2주 연속 톱10 진입

'골프 여제' 박인비(32)가 LPGA투어 2주 연속 톱10 진입에 성공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박인비는 지난 31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피너클CC(파71·6438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월마트 NW아칸소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6언더파로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공동 7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개월만에 투어에 복귀한 박인비는 지난주 AIG 여자오픈에서 단독 4위를 차지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박인비는 2015년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LPGA 통산 20승을 거뒀으며 2016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박인비는 특히 2주 연속 톱10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랭킹을 더욱 끌어 올릴 것으로 보여 내년 도쿄올림픽 대표팀 선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여자 골프 출전권은 2021년 6월28일 랭킹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난 25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박인비는 고진영(1위), 박성현(3위), 김세영(6위)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김효주(10위), 이정은(11위), 유소연(13위)이 그 뒤를 이었다. /뉴시스

유럽 여자축구 최강자, 5연패 위업 달성

여자축구 유럽 최강 리옹(프랑스) 선수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아노에타 경기장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볼프스부르크(독일)를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리옹은 볼프스부르크에 3-1로 승리해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메시 바이아웃 유효" 라리가, 바르셀로나 손들어줘

맨시티 이적하려면 위약금 9850억원 지급해야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사무국이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이 유효하다며 FC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줬다.

라리가 사무국은 지난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와 바르셀로나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라리가는 "최근 메시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메시에 대한 이적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무국은 이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 데뷔 후 바르셀로나에서만 활약한 메시는 지난 26일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

메시는 시즌 종료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로 팀을 떠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 기간은 2020~2021 시즌까지다. 하지만 메시가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올해 6월10일까지 계약을 일방 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메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즌이 미뤄지면서 해당 조항을 8월에 적용해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계약서상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적하려면 위약금 성격의 바이아웃 7억 유로(약 9850억원)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올스타 팬투표 3주 연속 1위

프로야구 롯데 마차도
올스타 베스트12 팬투표
최종 명단 9월 7일 공개

롯데 자이언츠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2020 신한은행 쏠 KBO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에서 3주 연속 최다 득표 선두를 달렸다.

KBO는 "30일 오후 5시 기준 KBO 올스타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3차 중간집계 결과 유효 투표수 115만3147표를 기록했다. 지난해 3차 중간집계(103만8019표) 대비 약 11%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31일 밝혔다.

드림 올스타 유격수 후보인 마차도는 총 71만3316표를 받아 3주 연속 최다 득표 선두를 유지했다.

최다 득표 2위는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키움 이정후(69만3551표)다. 1위 마차도와는 1만9765표 차가 난다. 남은 기간 최다 득표 역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고의 격전지는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이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은 3위 삼성 구자욱이 37만1367표로 4위 두산 김재환(37만176표)에 불과 1191표 차로 앞서 있는데,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적은 표차다.

특히 2차 중간집계 당시 4만여 표 이상이었던 표차가 일주일 사이 급격히 좁혀져 구자욱이 3위까지 뽑히는 외야수 부문에서 구자욱의 베스트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3루수 부문 LG 김민성과 NC 박석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번 3차 중간집계에서 LG 김민성은 41만5346표로 1위를 지켰고, 2위 박석민은 38만3577표를 얻었다. 김민성은 지난 2차 집계 당시 2위 NC 박석민과 2만9066표 차이를 3만1769표로 차이로 간격을 벌렸다.

구단 별로는 지난 2차 집계와 동일하다.

드림 올스타에 속한 롯데에서 댄 스트레일리(선발투수), 구승민(중간투수), 김원중(마무리투수), 마차도(유격수), 손아섭(외야수) 등 5명이 1위에 올라있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NC 구창모(선발투수), 양의지(포수), 강진성(1루수), 나성범(지명타자) 등 4명이 1위를 달린다.

롯데와 NC는 최다 베스트12 배출을 놓고 겨룬다.

키움, KIA, 삼성은 각각 3명, LG, KT가 2명, 두산, SK가 각 1명 순으로 베스트12에 이름을 올렸다.

2020 신한은행 쏠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는 9월4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최종 명단은 오는 9월7일 공개된다. 베스트12에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상금과 트로피, 올스타 특별 패치가 수여된다. /뉴시스